

강진 병영성서 죽창 꽃은 함정 64기 발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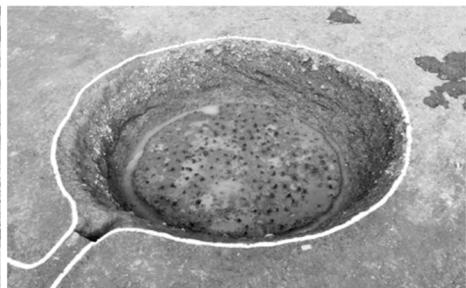
〈조선시대 전라·제주 육군 지휘부〉

〈陷葬〉

4.9m 원형에 2.5m 깊이
성곽 주변 대규모 설치 첫 확인
문화재청, 해자 등 유적 발굴



문화재청이 강진군과 한울문화재연구원에서 발굴 조사 중인 강진군 '전라병영성'(사적 제397호) 외부 해자 지역에서 해자(왼쪽)와 다수의 함정 유구가 확인됐다. /연합뉴스



조선시대 전라도와 제주도의 육군 지휘 부였던 강진 전라병영성에서 대나무 끝을 뾰족하게 깎은 죽창을 설치한 함정(陷葬) 유적 64기가 한꺼번에 출토됐다. 국내 성곽 방어시설에서 함정 유적이 대규모로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문화재청(청장 김중진)은 15일 강진군(군수 강진원)과 (재)한울문화재연구원(원장 김홍식)이 발굴조사 중인 '강진 전라병영성(사적 제397호)' 성 외부 해자지역에서 해자(壕)와 다수의 함정(陷葬) 유구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올해로 축성 600년을 맞이한 강진 전라병영성은 조선 태종 17년(1417년)에 당시 병마도절사 마천목(馬天牧, 1358~1431) 장군이 쌓아 올렸으며, 고종 32년(1895년) 갑오경장 전까지 전라도와 제주도의 53주 6진을 총괄한 육군 총지휘부였던 곳으로, 본래 광산현(현재 광주시)에 설치되어 있던 것을 옮겨 설치한 것이다. 이번 조사는 성 외부에 대한 첫 번째 발

굴조사로, 2008년과 2015년에 시행한 시굴조사에서 확인된 해자의 양상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성 바깥쪽의 동쪽과 남쪽 부근에 대해서 올해 4월부터 조사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동쪽과 남쪽 성벽을 따라 해자의 호안석축이 확인됐고, 남쪽 성벽 해자 바깥에서 함정유구가 확인되었다. 함정유구는 남문 일원의 해자 바깥쪽에서 현재 64기가 확인되고 있다. 함정유구들은 평면 형태가 지름 3.5~4.9m에 이르는 원형으로, 위에서 아래로 가면서 좁아

는 형태다. 잔존 깊이는 최대 2.5m이고, 바닥에서 끝을 쪼갠 대나무를 뾰족하게 다듬어서 촘촘하게 꽃아놓은 죽창(竹槍)의 흔적들이 확인됐다. 함정유구는 해자 바깥쪽으로부터 약 6~8m 정도의 거리를 두고 해자와 나란하게 2~4열로 확인되어 해자와 함께 성곽을 방어하는 중요 수단으로서 설치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번 발굴조사에서 확인된 함정 유구는 다산 정약용이 저술한 '민보의(民堡議)'에 등장하는 함마경(陷馬坑)이라는

성곽 방어시설과 관련된 것으로 판단돼 더욱 주목된다. 해자는 성벽 바깥쪽으로부터 약 11~17m 정도의 거리를 두고 만들어졌는데, 해자 양쪽 벽은 돌 자재를 사용하여 호안석축을 쌓았다. 해자 내부에서는 나막신, 목욕(침입)을 막고자 세운 나무말뚝 등의 목제유물과 조선 초부터 후기에 해당하는 자기·도기·기와 조각 등 다양한 유물들이 출토돼 해자가 조선 시대 전 기간에 걸쳐 방어시설로 역할을 한 것을 알 수 있다.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보성 초암정원



고흥 금세기정원

전남도, 보성 초암정원·고흥 금세기정원 개장

전남도 등록 민간정원인 '보성 초암정원'과 '고흥 금세기정원'이 15일 개장했다. 올해 초 문을 연 고흥 '힐링파크속섬속섬'과 담양 '죽화경'에 이어 등록 민간정원 3·4호다. 전남도는 이날 민간정원 3호와 4호로 각각 등록된 보성 초암정원과 고흥 금세기정원 개장식을 했다. 전남도는 역점사업인 '남도문예 르네상스' 선도사업 중 하나인 정원문화 확산을 위해 민간 주도로 조성된 생활 속 정원을 발굴, 전남도 민간정원으로 등록하고 있다. 초암정원은 광산김씨 문속공파 김선봉 선성 9대 종손인 김재기(79) 씨의 200여년 된 종가고택의 '난대상록정원'이다. 뒷산 편백에서 예당평야와 득량만이 넓게 바라보이는 배산임수의 전통적 고담한 정원이다. 정원 중간 중간에는

자연석 의자에 앉아 주변 득량만과 고흥 팔영산까지 아름다운 풍경을 한눈에 즐길 수 있다. 금세기정원은 1970년대 갯벌을 매립한 대규모 민간 간척지에 죽암농장의 김종욱(66) 대표가 가꾼 농경정원이다. 연꽃 가득한 한반도 지형 수변정원을 비롯해 소나무숲, 은행나무·메타세쿼이아 가로수길, 잔디광장, 간척 과정에 대한 교육과 농업체험이 가능한 김세기 기념관이 있다. 수변정원과 은행나무길, 들녘과 축사, 육묘장이 어우러져 남도의 멋과 낭만을 느낄 수 있다. 우기중 전남도 정무부지사는 "정원은 가꾸는 사람도, 보는 사람도 행복해지는 특별한 공간"이라며 "지친 몸과 마음을 편히 쉬어가도록 시군별로 1곳 이상 다양한 정원을 계속 조성하고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광주·전남 지진 무방비' 1면서 계속

이번 지진으로 건물 20여곳이 금이 가거나 일부 부서지고 도로 2곳이 금이 가자 통행을 금지했다. 포항 시내 상수도관 40개소가 파손됐고 KTX 포항역사 천정이 일부 무너졌다. 포항광대 등 4곳은 전정이 발생해 복구가 한창이고 주택과 상가 10여 곳에서 작은 불이 났다. 남구 지역도 행복아파트 두 채 화장실 천장이 무너졌고 북구 두호동 4층 건물과 우창동 상가 건물은 붕괴 우려가 있는 등 크고 작은 피해가 잇따랐다. 북구 장성동과 흥해읍 요양병원 3곳은 건물 외·내벽이 갈라져 환자들이 긴급 대피했다. 현재도 여진이 계속되고 있어 갈수록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으로 보인다. 기상청은 이번 지진의 여진이 수개월간 이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지난해 경주 지진의 여진은 이날 9일 현재 총 640회 발생했다. 기상청은 "계속해서 여진이 발생하고 있어 상황을 면밀히 분석 중"이라며 "발생 지점이 내륙 쪽으로 들어가 있어 해일의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이번 지진이 양산 단층의 영향으로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면서 "좀더 조사를 해봐야 지진의 원인을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치 담그기, 무형문화재 됐다

문화재청은 한국인의 정체성이 그대로 깃들여 있는 공동체 음식문화 '김치 담그기'를 국가무형문화재 제133호로 지정했다. '김치 담그기'는 2012년 유네스코 인류 무형문화유산으로 그 가치를 인정받은 '김장문화'보다 폭넓은 개념으로, 각 지역의 특색 있는 김치와 그 문화도 함께 포함하고 있다. 김치 담그기는 한국사회에서 지역적, 사회적, 경제적 차이를 넘어 대한민국 국민 전체가 공동체로 참여하는 일상적이고 보

편적인 문화다. 또 김치는 한국인의 식사에서는 빠질 수 없는 음식이며, 국제적으로도 그 우수성을 인정받아 한국을 대표하는 음식 중의 하나로 자리매김했다. 문화재 선정과 관련해서는 ▲역사적으로 상당기간 한국문화의 중요한 구성요소라는 점 ▲협동과 나눔이라는 공동체 정신이 담겨있고 현대 사회까지 지속된다는 점 ▲자연과 인간이 함께 어우러져 살 수 있는 전통지식을 담고 있는 점 ▲세대 간 전송에 모든 한국인들이 직간접적으로 동참하고 있



다는 점 등이 높이 평가됐다. 다만, 김치 담그기는 고도의 특별한 기술을 필요로 하기보다는 우리나라 전역에서 전승되는 생활관습이자 문화라는 점에서 특정 보유자나 보유단체를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문화재청은 '김치 담그기'에 관해 다양한 학술 연구와 기록화 사업 등을 펼쳐 '김치 담그기'의 가치 공유와 확산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1층 음식점·숙박업소·주유소·15층 이하 아파트 등 도 "재난배상책임보험 연말까지 가입하세요"

15일 오후 포항에 5.4 규모 지진이 발생한 가운데 전남도는 재난 발생시 대규모 피해가 우려되는 시설물에 대해 생명과 재산손해를 보상해주는 재난배상책임보험을 연말까지 가입하도록 권장했다. 15일 전남도에 따르면 정부에서는 지난 1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을 개정, 당초 지난 7월까지 재난배상책임보험에 가

입토록 했으나 연말까지 과태료 부과 유예 기간을 두고 자발적 가입을 유도하고 있다. 유예기간이 지나면 보험 가입을 이행하지 않은 시설물 관리주체에 대해 최저 30만원에서 최고 3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화재보험은 건물·집기 등 화재로 인한

자기재산의 피해만 보상해주는 보험인 반면 재난배상책임보험은 화재·폭발·붕괴로 인한 타인의 피해까지 보상해주는 보험이다. 가입 대상 시설은 모두 19종으로, 1층 음식점, 숙박업소, 주유소, 15층 이하 아파트, 여객자동차터미널 등이다. 보험 판매는 국내 10개 보험사에서 맡고 있으며, 콜센터(02-3702-8500)로 문의하면 가입부터 보상 내용까지 상담 받을 수 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해남 구성지구 간척지 숲 복원 공법 전국 모델로

자연식생 신공법 공개
해남 구성지구 간척지 자연식생 복원 공법이 숲 복원 전국 모델로 각광을 받고 있다. 15일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 14~15일 이틀간 영암 호텔현대에서 열린 전국산림복원대전 워크숍에서 올해 산림복원대전 대상을 수상한 '해남 구성지구 간척지 자연식생 복원 사업'의 신공법이 공개됐다. 구성지구는 영산강 하구에 위치해 토양 염분이 높고 척박하며 해풍의 영향을 심하게 받는 간척지 특유의 생태환경을 가진 곳으로, 전남도는 이 같은 불리한 수목 생육 환경을 극복하고자 새로운 복구 공법을 도입했다. 염분을 줄이기 위해 소규모 소류지 2곳을 조성하고, 충분한 복토와 마운딩 처리로 수목의 뿌리 생육을 원활하게 했다. 토양 수분의 건조를 방지하기 위해 수목 폐기물을 활용한 우드칩 멀칭을 하고, 단계별 방풍책 시설로 안전한 생육 공간을 확보했다. 수목 구성도 해송 위주의 틀에 박힌 단순한 숲에서 벗어나 남해안 지역에서 주로 자생하는 후박, 동백, 구슬잣나무, 종가시나무 등을 혼합하는 자연식생복

원 방식을 도입했다. 또 담양 관방제림의 30%를 구성하는 푸조나무를 해안변에 심어 쓰나미와 해일 등에도 강한 숲을 조성했다. 신공법은 전복 새만금 간척지 복원을 위한 자료로 제공되는 등 숲 복원 전문가들이 주목하고 있다. 봉진문 전남도 산림산업과장은 "간척지에 친환경 자연정원 숲을 조성해 경관 창출 및 지역 발전에 기여하고, '숲 속의 전남'과 연계한 지속적 관리 실현과 간척지 식생복원 모델링 개발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임야

바로 삽니다. 010-6838-1230

비금도·팻섬

· 임야 14010평, 보전관리지역
· 매 14억(임시불 대폭조정), 무인도
010-3605-5000 교환가능

부실채권 못받은 돈 회수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서·운송료 차용증·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
녹취등 각종채권상당

▶ 절대 선수금, 출장비용 없음 ◀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채무자 재산, 신용·주거래은행·차량등 파악
- 실거주지파악가능
- 법인회사 부도시 회수 가능
- 전국 68개 점포로 전국가능

▶ 국가신용관리사가 직접관리 ◀

선수금만 주고 돈도 못 받고 계신분들이 많으나 당사는 여러분의 재산을 회수한 후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당사는 내재산이다라는 마음으로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4시간 상담가능)

새한신용정보(주)
010-6833-1600
직통전화 062)513-4306

태양광 발전소 삽니다! 팝니다!

태양광 100K·200K·300K·500K·1메가

- ▶ 견적 설계 · 시공(지상 임야 노지, 아파트, 주택)
- ▶ 태양광 부지 매입합니다.

태양광 발전소 관리 전문

- ▶ 각도 조절, 잡초 제거(물막, 애초기)
- ▶ 모듈 청소(발전량 상승) 관리해드립니다.

태양광 발전 전문기업

※ 영업사원 모집

(주)동현태양광ENG
☎ 063-225-1116
상당 010-8813-4770

송정리 부동산 매물

- ▶ KTX 개통 최대 혜택지
- ▶ 투자가치의 3개소
- ▶ 11억, 12억, 19억
- ▶ 각 코너 위치

※ 2018년 초 복합환승센터 착공예정

신안군 염전 매물

- ▶ 대형부지 (만오천평)
- ▶ 태양광 부지로 검토 필요
- ▶ 투자가치

문의 010-5236-7458

기독교대안학교 입학설명회

미국연수
2018년 1월 21일~2월 10일
함께 설명

일시 : 2017년 11월 25일(토) 11:30
문의 : (061) 381-0000

TALK **광주국제기독교스쿨**
전남 담양군 무정면 중리도동길 42-34